

남성의학 전문의 소영석의
술적·대담한 性

정액, '호르몬'이 아닙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정액이 너무 묽거나 아니면
젤보다 진하고 어떤 경우에는 알갱이가 만져진
다며 성병이나 정액 이상으로 불임이 오지 않을
까 걱정하는 이들이 있다. 또는 사정량을 정력의
척도로 보고 정력이 떨어졌다고 걱정하여 문의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남성들이 정
액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접하지 못했거나 잘못
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액의 60~70%는 정낭, 10~30%는 전립
선에서 나머지는 요도주위선 등에서 만들어지
며 고환에서 만들어지는 정자는 극히 일부다.
정상의 정액은 정자를 포함할 수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불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인 정자는 정액 내에 차지하는 양이 약 0.2
cc 내외로 극히 적다. 가끔 정관수술 후 정액양
이 줄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 사
정량이 감소됨을 느끼기에는 양이 매우 적으며
사정량 감소는 수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심
리적 이유 때문으로 정관수술 후 정액이 없어
지거나 사정양이 많이 감소된다는 생각은 기우
에 불과하다.

나면서 전립선염의 효소에 의해 물처럼 액화된
다. 일정 시간이 지나도 정액이 액화되지 않나
면 전립선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사정
액이 갈색이나 붉은색을 띠면 혈정액증을 의심
해야 하고 후부요도결관의 손상이나 정낭, 전립
선 염증 등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하는 것이
좋다.
가끔 성병도 없고 사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도로 정액과 같이 끈적이는 분비물이 나온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성관계나 자위행위
와 관계없이 수면중발기과 같이 충분한 발기가
이루어진 후에 정낭이나 전립선 및 요도샘의 수
축으로 정액의 일부가 요도로 밀려나오는 것으로
성적으로 건장하고 정상적인 생리반응이다.
일부에서는 만성전립선염이나 정낭염 등이
골반근육이나 전립선피막에 경련과 같은 수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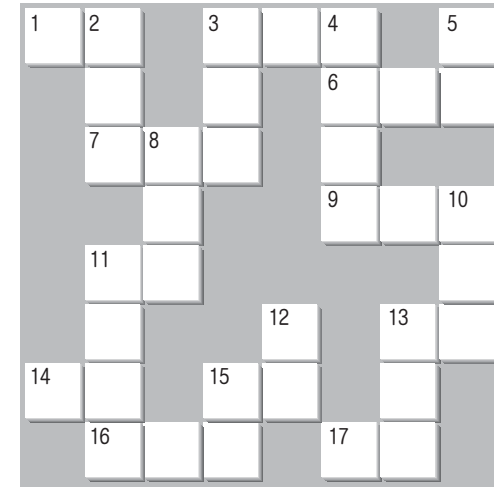
작용을 일으켜 농처럼 끈적거리는 정액이나 분
비물이 나올 수 있으므로 분비물 검사를 통해 원
인을 파악하고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액은 개인마다 독특한 특성이 있어 성분을
분석해 성범죄자를 찾기도 한다.사정량은 개인
차 있고 볼 상태에 따라 사정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상치는 약 2~5cc, 평균은 3cc이고 2cc
미만일 경우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환경호르몬의 영향으로 정액량 및 정자수가 감
소하고 정자의 운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된다.
사정액의 생성은 남성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정액량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 담담하게 받아들
일 필요가 있으며 정액량이 줄었다는 한 가지 현
상만으로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남성은 성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문
제가 생겼을 때 상담하고 치료받는 것을 주저하
면서 스스로 판단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 전문의를
찾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범비뇨기과 원장)

리빙 센스
계란형 얼굴을 만드는 지압법
■불살
① 검지와 중지로 관자놀이 부분을 동글게 굴러가며 누른 후 귀의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부분을 거쳐 코 윗부분을 옆까지 사선 방향으로 꼭꼭 누르며 내려온다.
② 손바닥으로 광대뼈를 감싸고 앞에서 옆쪽으로 힘을 주어 누른다.
③ 주먹을 쥐고 코 쪽에서 얼굴 바깥쪽으로 광대뼈를 밀어낸다.
■턱살
① 귀 중간과 움푹 들어간 부분인 하관을 엄지로 지그시 누른 다음 턱선을 따라 내려오면서 누른다.
② 입술 아래 움푹 들어간 부분을 손가락으로 동글게 둘러가며 누른 다음 턱선을 따라 귀까지 올리는 느낌으로 누른다.
③ 주먹을 쥐고 턱선을 따라 귀까지 짧게 끊어가며 밀어 올린다.

함께 풀어봅시다 < 306 >

가로풀이
1. 글을 읽어서 뜻을 이해함. 이번 영어 시험은 ~ 위주로 출제됐다. 3. 매우 짧은 동안. ~에 물거품이 되었다. 6. 파생어를 만드는 접사로, 어근이나 단어의 뒤에 붙어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하는 말. 선생님의 남, 지우개의 개 등이 있다. 7. 자기 나라에서 생산함. 또는 그 물건. → 외국산. 9. 악기를 다루어 곡을 표현하거나 들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 그는 훌륭한 피아노 ~였다. 11. 물이나 주가 등의 시세가 올라가는 기세. 또는 한 낱말에서 어떤 음절의 발음에 특히 힘을 주는 일. → 약센트. 13. 대학의 학부 과정을 마치고 규정된 절차를 밟은 사람에게 수여하는 학위를 이르는 말. 14. 목적지까지 보호하여 운반함. 또는 죄수나 형사 피고인을 어떤 곳에서 목적지로 감시하면서 데려가는 일. → 압송. 15. 몸을 움직이거나 가누는 모양. 또는 사물을 대할 때 가지는

세로풀이
2. 전날의 술기운으로 거북한 속을 풀기 위하여 먹는 국. 3. 제주도 중앙에 있는 산. 참나무 신나무 단풍나무 등의 식물이 자라며, 명승지로 삼삼할 백록담 등이 있다. 4.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어마시게 되는 것. 5. 무엇을 흉내 내어 그대로 나타냄. 성대 ~, 8. 물이나 시세 등이 떨어지거나 낮아지는 기세. 달러화가 큰 폭의 ~를 보이기 시작했다. 10. 동사의 한 갈래. 움직임의 대상



상운중생대
상등생관비
거식용유
조리공로비
지체취로노
혈액형객기
정차
(함께 풀어봅시다 305회 정답)
▲지난주 정답자
김호민·해남군 해남읍 해리
김태인·광주시 서구 풍양동
행운의 숫자 : 14, 11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보내시면 매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문예체부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6월 16일(음 5월 13일 丁亥)
36년생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잃지 마라. 48년생 자신 있게 활동하라. 60년생 한 생의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으로 하루가 평안하다. 72년생 할상 경계를 늦추지 마라. 84년생 경쟁자가 없다고 착란 채는 하지마라. 행운의 숫자 : 01, 02
37년생 주변에 감사의 표시를 하라. 49년생 성과를 만난 일련된 주니 마음의 안정을 기하라. 61년생 생소한 길을 만난듯하니 살피서 행동해야 한다. 73년생 처가나 시가 편에 애정사가 생길 수 있다. 85년생 순풍에 항해하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11, 13
38년생 세 번 생각하고 행동하면 후회는 없으리라. 50년생 새로운 삶의 안정된 가정을 이룬다. 62년생 제도전의 꿈이 실현될 징조가 보인다. 74년생 새로운 인연은 결국 허락된 상처만 남긴다. 행운의 숫자 : 03, 12
39년생 재물의 손실 사기 실들을 조심하라. 51년생 정신이 없는 하루나 각별한 신경을 쓰라. 63년생 앞뒤로 눈물을 흘리며 주변이 신난다. 75년생 의외의 득재와 영전 승진하는 격이나 이상 문제에 신중 하라. 행운의 숫자 : 14, 11
40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고 도처에 은인이라. 52년생 모든 일이 순조로우나 배우자의 건강을 챙겨라. 64년생 바깥 손을 놓고 뒤를 돌아보는 것도 좋으리라. 76년생 자신의 임의로 쌓은 정성이 무너질라. 행운의 숫자 : 05, 10
41년생 시비가 수고 따르고 신체적 불만이 발생할 수도 있다. 53년생 특별히 건강에 유념하라. 65년생 주변으로 인해서 괴로움과 안타까움이 생길 수도 있다. 77년생 말씨와 글씨, 심신까지도 신중하고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16, 9
42년생 애정의 권리가 있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라. 54년생 모든 일에 불편한 인연이 따를 수가 있다. 66년생 보이지 않는 모색을 하고 있으나 쉽지는 않다. 78년생 의외의 협조가 있고 시구가 늘어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07, 08
43년생 불연이면 물 위의 기름으로 떠돌기를 당할 수도 있다. 55년생 우연한 이상의 만남도 꿈꾸어 보라. 67년생 의심심 굴곡을 지나는 형상이니 살펴봐라 하라. 79년생 부부의 냉정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행운의 숫자 : 17, 18
44년생 직업과 남편사이에 불만이 불평이 나타날 수도 있다. 56년생 재물과 처사 사이에 갈등이 생기니 중정의 마음을 가져라. 68년생 상당한 고역이 따를 수가 있다. 80년생 부부의 잘못과 외사담의 불만이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09, 16
45년생 순류에 항해하는 격이다. 57년생 새로운 일 곧바로 생길 듯하다. 69년생 식구들과 떨어져 지낼 수도 있고 애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81년생 안 밖으로 사막하고 거역이 상심되니 건강에 유의하라. 행운의 숫자 : 20, 25
46년생 형제 주변의 도움이 있고 학문의 발전이 있다. 58년생 큰 성공의 기쁨이 마련된다. 70년생 금전사기 대소비가 있을 수 있고 건강의 점검도 하라. 82년생 부부간 언쟁이 있으나 현명하게 생활하라. 행운의 숫자 : 14, 21
47년생 무리하지만 않으면 어부지리도 한다. 59년생 새로운 일이나 금전거래는 신중하고 건강관리에 유념하라. 71년생 좋은 일도 있고 흉한 일도 있다. 83년생 일고일락이 있으나 나쁘지는 않다. 행운의 숫자 : 22, 23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가
14 38
25 20
19 18 24 15
17 23 21 22
36
37 35 34
33 28
30 29 31
27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黑 29, 속수교환
2회전 2국 2보(14~38)
白 김광식 5단 (주 승림)
黑 표정재 5단 (빛고을 교사회)
흑이 '가'로 두지 않고
삼공해 왔으며
백이 14로 붙인 것은
당연한
응수였다. 이때 표정재 5단은 손을 빼
서 발빠르게 흑 15로 달려갔는데 이
수로는 '참고도1'의 흑 1로 두고 9가
지 백 한 점을 공격할 수도 있었다.
흑 25까지 정석대로 진행한 다음
김광식 5단은 백 26으로 높이 두었는
데 이 수로는 한줄 아래 29의 곳에 두
는 것이 더 현실적이었다. 표정재 5
단도 26을
의식했는지
흑 27로 붙
여두고 나
서 이번에는
29로 아
래에서 붙
여 당겼다.
이 수는 속수교환으로, '참고도2'
의 흑 1로 먼저 밀고 5를 선수한 다음
그냥 7에 두는 것이 다음 '나'로 달리
는 수를 보아 더 나은 보인다.
백 38로 붙여간 것은 무슨 뜻일까.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광주 kixx 4패 뒤 첫승
광주 kixx가 2008한국바둑리그에서
첫 승을 올렸다.
kixx는 지난 13일 서울 한국기원에
서 마무리된 이 대회 5라운드에서 경
북 월드 메르디앙을 상대로 3-2 승리
를 거뒀다.
1~2국 주자로 나선 Kixx의 이창호,
조훈현 9단이 나란히 이겨 승리의 초
석을 깔았다. 하지만 3~4국 주자인 이
성재 8단, 박정상 9단이 패배해 상대전
적 2-2로 한때 역전세의 위기에 놓이
기도 했다.
승부의 추는 마지막 주자 송태곤 8
단이 박정상 2단을 상대로 271수만에
반집승을 거둬 kixx로 기울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우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182>
I'm thinking about asking Richard out
리처드에게 분명히 물어봐야겠다고 생각중이야
A : I'm thinking about asking Richard out.
B : I was wondering if you liked him.
A : Well, now you know.
B : I think you should ask him.
A : 리처드에게 분명히 물어봐야겠다고 생각중이야.
B : 혹시 너 그 사람 좋아하니?
A : 음, 지금 네가 알고 있는 그대로야.
B : 내 생각에는 네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 ask out = 분명히 물어보다.
* I was wondering if ~ : 혹시 ~이니?
* 혹시 너 오고 싶은 거니?
= I was wondering if you would like to come over.

오하오우 니혼고 <1182>
遠慮(えんりょ)は要(い)りませんよ。
체면 차리지 마십시오
A : まだたくさん残っていますね。家内(かない)の自慢料理(じまんりょうり)ですから、どうぞ食べてください。
B : ええ、とても美味(おい)しくて、たくさんいただきました。
A : 遠慮(えんりょ)は要(い)りませんよ。
B : もうお腹が一杯(いっぱい)で動(うご)けないくらいですよ。
A : 아직 많이 남아있군요.
집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요리니까, 많이 많이 드세요.
B : 에에, 아주 맛있어서 많이 먹었습니다.
A : 체면 차리지 마시고 많이 드세요.
B : 이제 배가 불러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입니다.
殘(のこ)る : 남다
自慢料理(じまんりょうり) : 자랑할 수 있는 요리
遠慮(えんりょ) : 염려, 걱정

니하오 쑹구위 <159>
你们班谁跑得快?
당신들 반에서 누가 제일 빨리 달립니다?
A : 你们班谁跑得快?
Nimen ban shi pao de kuai
니먼 반 셴 셴오 더 쿵웨이
B : 他跑得快。
ta pao de kuai
타 셴오 더 쿵웨이
A : 谁跳得高?
shei tiao de gao
셰이 티아오 더 가오
B : 金老师跳得高。
jin laoshi tiao de gao
진 셴오 셴오 티아오 더 가오
A : 당신들 반에서 누가 제일 빨리 달립니다?
B : 그가 제일 빨리 달립니다.
A : 누가 제일 높이 뜀니까?
B : 김 선생님이 제일 높이 뜀니다.
跑 [pǎo] 달리다
跳 [tiào] 뛰다

한자 이야기 <799>
折衝(절충)
들릴 절, 전차 충
절충(折衝)은 적의 공격을 전자(戰車)인 충차(衝車)를 돌려 세운다는 뜻으로, 적군을 싸우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여기서 발전하여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상대와의 교섭, 또는 외교상의 담판'이라는 의미가 나오게 되었다.
사전에서는 본래 '뺨을 자른다'는 의미의 절(折)을 '꺾다'로 전의(轉義)하여 '절충'을 '적의 찌름을 꺾어 막는다'로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충(衝)은 창이 아니고, 적진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상하좌우가 온통 쇠로 덮여 있는 '충차(衝車)'이므로, '절(折)'은 '꺾다'보다는 '돌리다'로 전의(轉義)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야 자신의 영토를 공격하려는 적군의 충차를 싸우지 않고 되돌려 보낸다는 뜻이 된다. 이 말은 전국시대 제(齊)나라의 명재상이자 외교가였던 안영(?~BC 500)의 고서에 유래한다. 안영이 술독과 안주를 차려놓은 연회석상에서 적의 공격을 막았다고 하여 '준조절충(樽俎折衝)'이라는 말이 생겨났던 것이다.
현재는 분쟁이 생겼을 때, 양쪽이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국제적 외교담판을 '절충(折衝)'이라고 하는 반면, 양쪽의 좋은 점을 취하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조화하는 것은 절충(折衷)이라고 하고 있다.